

#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순항'

### 토지보상 90% 달성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순조... 내년 착공 '청신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군산시 사정동(194-1) 일원에 추진 중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토지보상협약과 도시계획 심의, 설계공모 심사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조달청 공모를 통해 진행된 설계공모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업이 본격화 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군산시와 건립부지 매입업무 대행 및 출연금지원 협약을 맺고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가 현재 90% 이상 토지매입을 달성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초부터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문과 설계용역 공고에 돌입했으며, 지난달 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사업부지인 사정동 일원을 병원건립이 가능하도록



군산 전북대병원 조감도

예정부지 내 생산농지지역을 의료시설 입주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원은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비롯한 각종 인가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군산전북대병원은 지하 3층 지상 9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 시설로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국

제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이 들어서면 급성기 질환치료(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및 질환별 특화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 및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통한 군산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주민 위기감 해소, 새만금 배후지역의 종합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국가재난급사건의 성공여건의 기반 조성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남천 병원장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원하는 군산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산과 행정절차 등 남은 과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운상 기자



최근 한전 군산지사와 (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버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어르신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

### 한전 군산지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업무협약 체결

최근 한전 군산지사와 (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버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지사가 만60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산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한전 군산지사는 전력설비 미관개선사업, 사육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역축제고객 홍보활동 등 지역 어르신이 전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노인회 군산지회는 한전 군산지사에서 전력사업 수행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래범 (사)대한노인회 군산지회장은 "한전 군산지사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서로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관영 한전 군산지사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운상 기자

## 전북농협,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 공모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21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마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3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를 포함한 24개 소, 5억원 규모로 시상될 예정이어서 농촌마을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대상은 사계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농촌마을로서,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오는 10월 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상자를 게재하고 11월 농협중앙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운상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군산·김제 부안 전통시장 3곳과 자매결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21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및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김제·부안 전통시장 3곳과 자매결연 협약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강팔문 사장을 비롯해 군산시상인연합회 박태만 회장·김제 전통시장상인회 오인종 회장·부안상설시장상인회 남정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매년 2회(설날·추석) '전통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해 각 시장의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 장보기 행사를 1회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김운상 기자

## 신태인농협, 올해 첫 중기제조 드론 방제 실시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21일 신태인 일원에서 농업용 드론으로 2020년 첫 '중기제조 드론방제'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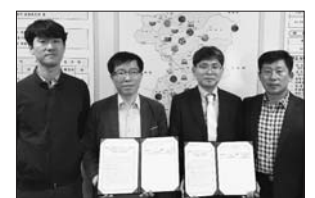
농업용 드론은 1,200명의 논 방제작업을 2분이면 끝낼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고, 단위면적 당 일정하게 분사량을 유지해 약제의 오남용, 살포누락, 중독살포가 줄어드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운상 기자

##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공급·관리

### 남원 농어촌공, 주천·보절·아영면과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효율적인 농어촌용수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주천면, 보절면, 아영면과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서는 김용재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과 양순철 주천면장 등 각 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은 일대저수지(아영면), 도촌저수지(보절면), 장안저수지(주천면)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 및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년 수질관리 계획 수립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수지 상류오염원 관리 미흡

과 관련 대책 추진지연 등으로 수질개선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저수지 상류유역 오염원 감축, 유입하천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협력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담당자와 지역농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 10억원 규모 산학협력 과제 공모

### LX 공간정보연구원, 내달 19일까지 도내 대학중심 사업화 연구·사회문제해결 연구 등 크게 2가지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김형근)이 1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R&D 자유과제'를 전북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공모한다.

공모 기한은 오는 6월 19일 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사업화연구'와 '사회문제해결 연구'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사업화 연구란 데이터 자원화와 플랫폼 구축, 플랫폼 관련 기술의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기술의 개발이나 관련기술 보유 기관의 사업화 촉진 방안에 관한 과제가 해당된다. 또 사회문제해결 연구는 사회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간

정보 정책기술을 활용하는 과제로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전북지역 내 현안을 해결하는 사항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공모는 전북 소재 대학이 중심이나 이들 대학과 관련된 타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기업이나 학회 등과의 공동연구과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과제에 대해 연구원은 위원회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후 최대 10억 원 규모 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오는 6월 19일

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www.lx.or.kr)나 LX공간정보연구원 홈페이지(www.lxsirre.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현근 원장은 "산학 협력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선례를 만들고 싶다"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 나가자겠다"고 밝혔다.

한편, LX공간정보연구원은 지난 3년간 80억 원 규모의 '산학협력 R&D 과제' 공모사업을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누어 추진해오고 있다. 관련문의는 LX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063-900-5614)로 하면 된다. /김운상 기자

## 김치·고추장, 프랑스 집밥메뉴로 변신... '좋아요'

### aT, EU 유명 인플루언서 연계 SNS 마케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이동제한령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도 홈페이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K-FOOD를 주제로 한 SNS 라이브 쿠킹쇼가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프랑스와 영국의 소셜 인플루언서와 연계해, 한국식품을 활용한 레시피와 구매방법을 안내하는 SNS 라이브 쿠킹쇼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쿠킹쇼에는 프랑스 최초의 쿠킹채널 운영자인 에르베 퀴진(Herve Cuisin)과

비건식 건강레시피로 유명한 영국의 시소달리셔스(Shisodeticious)가 참여했으며, 지난 4월 김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품목별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에는 한국의 고추장을 활용한 레시피로 온라인 쿠킹쇼를 진행해 12만 명이 시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SNS상에서 제품의 특징, 구매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소통한 결과 실질적인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프랑스 주요 온라인미디어 퀴진 악주엘(Cuisine Actuelle), aT 파리지

사의 한국식품 홍보 웹사이트(www.k-foodfan.com)와 연계해 레시피 공유, 한국식품 쿠킹, 기프트 박스 증정 등 홍보 이벤트를 진행해 현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프랑스 뉴스전문지 CNEWS에서 한국의 발효식품에 대해 집중 소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기 속에서도 4월까지 대EU 농식품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 중이다. 특히 대표적 한국식품인 김치와 고추장 수출은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운상 기자

## '병 줄고 힘 덜 들어요'

## 농진청, 멜론 수경재배 '첫 선'

### 친환경 기술 현장 평가회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멜론 수경재배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 연구소(경남 함안군)에서 열린 현장 평가회를 통해 관련기술을 소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출업체 관계자, 농업인들은 수경재배에 알맞은 멜론 품종과 심는 간격, 아주심기 방법을 공유하고, 재배기술 보급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농촌진흥청은 전체 멜론 재배면적(약 1,500ha)의 0.9%에 불과한 수경재배 면적(13.1ha)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코이어 배지(코코넛 껍질 가공)를 활용한 수경재배 기술을 연구해 왔다.

수경재배는 이어지기 장해(연작장애)를 막을 수 있고, 양·수분 정밀 관리로 과일 품질의 균일도를 높이며,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이어 배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코이어 배지에 멜론을 재배한 결과, 크기는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이 가능했고, 당도도 12브릭스(Bx)

이상으로 양호했다. 배지 규격은 100cm, 심는 간격은 배지당 모종 3포기로 조절하는 것이 품질 면에서 유리했다. 아주심기 시 흙을 파지 않고 모종을 엮어두는 방식으로 심었을 때 작업 시간이 42.8% 줄었다.

또한, 양액 양(배액량)은 열매 달리는 시기와 열매 달림이 끝난 후 각각 30%, 2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멜론 무게 향상에 도움이 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멜론 수경재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상품성이 높은 규격 멜론 생산을 유도해 수출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3~4% 정도이며, 2019년 1,555톤(450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55.1%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일본 등이다.

이중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시 발생하는 선충·곰팡이·점뿌리썩음병 같은 전염성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노동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운상 기자

## 지역사회 봉사·나눔경영 실천

### 경진원, 송천1동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적 가치 활동을 위해 21일 송천1동에서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경진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도 11월까지 송천1동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지정기탁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면서 경진원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상 기자

배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됐다.

경진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에도 11월까지 송천1동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지정기탁 후원금 50만원을 전달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다"며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면서 경진원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